STRATEGY 21
통권43호 Vol. 21, No. 1, Summer 2018

해양전략 이론 형성에 영향을 준 지상전략 이론

박 주 미*

Ⅰ. 서론

Ⅱ. 지상전략 이론과 해양전략 이론
1. 지상전략 이론
2. 해양전략 이론

Ⅲ. 클라우제비츠와 콜벳
1. 주요개념
2. 유사성과 상이점

Ⅳ. 조미니와 알프레드 마한
1. 주요개념
2. 유사성과 상이점

Ⅴ. 결언

* 해군소령, 국방정신전력원 정훈학처,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정치·사회과학은 지적으로 훈련된 학자들에 의해 조직화된 지식으로, 논리적 이해와 적절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1] 그리고 정치·사회과학이론은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자 틀로써,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추상적인 사회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말한다. 특히 좋은 이론은 단순히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논리적인 깊이와 이해를 제공해 준다.[2]

복잡한 정치·사회적 결과물로 발생하는 '전쟁'의 영역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전쟁의 원리와 방식, 개념, 그리고 승리 결정요인과 원칙들을 찾아내려고 한 많은 군사전략 이론가들이 있었다. 그들의 수많은 이론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장소, 안보환경 속에서 검증받았고, 그 결과 일부는 수정되거나 또 일부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며 진화하는 군사전략 이론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군사전략 이론들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데 비하여[3], 지상전략과 해양전략 혹은 항공전략 이론들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초기 위대한 해양전략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19세기, 수많은 위대한 해양전략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전략 이론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현대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라우제비츠, 조미니, 리델하트, 풀러, 앙드레 보프르 등 대부분의 서양 군사전략 이론가들이 19세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혹은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지상전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지상전 위주의 전략적 고려가 많았던 반면, 해양전략 이론들은 '바다'라는 해양환경의

---

1) Gerry Stoker, "Intoduction." in David Marsh and Gerry Stoker 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Houndmills, MACMILLAN PRESS LTD, 1995), p.7.

2) Gerry Stoker(1995), pp.16-17.

3) 호이저는 2002년 클라우제비츠『전쟁론』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글을 통해 몰트케와 슐리펜, 포슈와 베른하르디 등 대부분의 전략 이론가들이『전쟁론』의 발전적 내용과 다양한 논의를 무시하고 나폴레옹 시대의 결전을 이상적 전쟁으로 해석한 부분만을 옹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군사학계에서 한쪽 방향만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는 해양전략에 응용한 콜벳과, 중국 내전에서 인민해방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오쩌둥의 두 부류는 현실주의적인 클라우제비츠의 논리를 동시에 이해했으며 이를 응용할 수 있었던 소수의 인물들로 평가하고 있다. 베아트리체 호이저 저, 윤시원(옮김),『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서울: 일조각, 2016), p.260.

특수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1·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거나 상관없는 원리와 방식, 개념들이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면 정말 해양전략 이론들은 기존 지상전략 이론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놀랍게도 많은 해양전략 이론가들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 해양전략 이론 형성의 바탕이 되었던 지상전략 이론들을 직접 밝히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해양전략 이론들은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기존 이론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해양전략 이론의 형성 과정에서 그 이전의 지상전략 이론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이론들과 차별성을 보인다는 것은 많은 해양전략 이론들이 비록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그 이론들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적용하여 그들만의 이론을 정립하였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들의 이론들이 독창적이라는 것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해양전략 이론가들의 이론과 저서를 바탕으로 각 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지상전략[4] 이론들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표적인 지상전략 이론과 해양전략 이론을 통해 각 이론들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면서 지상전략과 해양전략 이론이 지닌 공통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군사전략 이론가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영향을 미쳤다고 일컬어지는 클라우제비츠의 이론들이 영국의 대표적인 해양전략 이론가 줄리안 콜벳의 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해양전략 이론의 선구자로 역시 해양전략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알프레드 마한이 어떻게 조미니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해양전략 이론과 지상전력 이론의 상관성이 향후 전략이론 발전을 위해 지니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

4) Land Power, Land Warfare, Continental Strategy, Continental theory 등의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통상 군사력, (군사)전략이론 등으로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된다거나, 육전전략(이광희, 김종민), 지상전략(박창희), 대륙전략(강영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양전략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상전략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표 1〉 1900년까지 해군사상의 기원 (미국과 영국의 사상은 제외)[5]

저 자	제 목	연 도	국 가
카스티야 알폰소 왕 (King Alfonso of Castle)	바다에서 달성되는 전쟁의 결과 (*De La que & fave por la mar*)	1270	스페인
아마드 빈 마지드 (Ahmad Bin Majid)	해양학의 혜택과 원칙/항해의 원칙과 규칙에 관한 유익한 자료서	1489	아랍에미레이트
술래이만 알 마린 (Suleiman al Malin)	해군과학 정복을 위한 기초	1511	오만
앙투랑 데 콩플랑 (Antoine de Conflans)	함대와 항해의 본질 (*Les Faisz La marine et de la navigaie*)	1516	프랑스
알론소 데 차베스 (Alonso de Chaves)	선원들의 안경 (*Expejode navegantes*)	1538	이탈리아
판테로 판테라 (Pantero Pantera)	해군(*L'armata navale*)	1614	프랑스
투르빌 백작 (Conte de Tourville)	신호와 건축	1691	프랑스
피에르 폴 호스테 (Pere Paul Hoste)	함대술 또는 해군혁신에 관한 논문 (*L'Art de armees navales or traite des evolutions navales*)	1697	프랑스
모로그 자작 (Vicomte de Mofogues)	해군전술 또는 신호술 발전에 관한 논문 (*Tacriques naval ou traite des evolutions et des signaux*)	1763	프랑스
그르니에 자작 (Vicomte de Grenier)	해상전쟁술 또는 해군전술 (*L'Art de la Guerre sur Mer ou Tacrique Navale*)	1787	프랑스
오디베르 라마투엘레 (Audibert Ramatuelle)	해군전술에 관한 기본과정 (*Cours Elementaire de Tactique Navale*)	1802	프랑스
줄리오 로코(Giulio Rocco)	해양력의 연구 (*Riflessioui sul potere marittimo*)	1814	이탈리아
장 그리벨 제독 (Real Admiral Jean Grivel)	해군 연구 (*Considerations Navale*)	1832	프랑스
장 그리벨 제독 (Real Admiral Jean Grivel)	함대에 대하여 (*De La Marine Militaire*)	1837	프랑스
베레진 중령 (Lt Capt. V. Berezin)	해군전술 (*Morskaya Taktika*)	1880	러시아
스테판 마카로프 (Stepan O. Makarov)	해군전술에서 문제 토의	1898	러시아
도메니코 보나미코 (Domenico Bonamico)	해양력 (*Il potere Maritime*)	1899	이탈리아

5) 비록 해양전략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마한을 필두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만, 결코 현대에 와서 새롭게 창시된 것은 아니다. 〈표 1〉에 보는 것과 같이 세계 각지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해양전략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제프리 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마한과 콜벳이 현대해양전략에서 지배적인 것은 그들의 개념적인 통찰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이 속했던 국가가 해양국가였고, 그들의 언어가 국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프리 틸(Geoffrey Till) 저,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96-97.

Ⅱ. 지상전략 이론과 해양전략 이론

1. 지상전략 이론

많은 전략이론서가 지적하듯 '지상전략'을 '해양전략'이나 '항공전략'과 따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6]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이라고 정의하거나 설명할 때의 전략은 곧 지상에서의 전략을 의미해왔기 때문이다.[7]

이는 전략이라는 용어의 어원이나 개념의 발전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서양에서의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는 희랍어 'strategos-장수의 책략'(art of the general)[8]에서 유래되어 나폴레옹 시대 이전까지 주로 지휘관의 용병술의 의미로 여겨져 사용되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 등 전쟁의 규모 커지고 성격과 양상이 총력전으로 달라지면서부터 클라우제비츠를 비롯한 많은 군사사상가들에 의해 전략이라는 용어도 국가전략, 대전략, 작전술, 전술 등으로 세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체계화되었다. 오늘날 전략이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비군사적인 개념까지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지상전략이 곧 군사전략이라고 인식될 만큼 지상전은 전쟁 승패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는 콜벳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류가 사는 곳은 육지이므로 영토의 지배가 곧 국가의 능력과 정부의 합법성, 신뢰성 등에 직결되었기 때문이다.[9] 지상전에서 영토의 점령은 전투,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왔다.

지상전은 위치, 기후, 인구밀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전투 환경의 조합 때문에 작전형태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산악, 강, 바다 등의 복잡한 지형을 극복해야 하므로 기동과 사격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상전의 제한사항(friction)이나 불확실성(opacity)은 장애물로서 뿐만 아니라 적 공격의 효과를 감소시켜 주기도 한다.

---

6) 와일리는 군사전략 관련 이론을 해양이론(Maritime Theory), 항공이론(Air Theory), 대륙이론(Continental Theory), 마오쩌둥이론(Mao Theory)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뒤 이 때문에 각 군들이 이해하는 전략개념과 원칙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J. C. Wylie, *Military Strategy* (M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4)

7) 박창희, 『군사전략론』(서울: 프래닛미디어, 2017), p.209.

8) 이종학,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 「손자병법」과 「전쟁론」을 중심으로』(유성: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5.

9) Christopher Tuck, "Land Power," in David Jordan and James D. Kiras eds,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85.

또한 지상전은 병력 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동원과 물자확보, 화력운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전이나 항공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무기체계에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지상전만으로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상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쟁론, 전쟁술 등의 체계적인 군사전략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져왔고, 화력의 정확도나 공격범위 등에 있어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조직과 규모가 방대해진 군대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군수 역시 지상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항공세력과의 합동작전이 전술적 승리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공세적 작전, 우세한 지역 획득을 위한 효과적 기동, 기습 등을 통한 초기 승리, 결정적 지점에 대한 집중, 일관된 지휘 통솔 등을 강조한다.

2. 해양전략 이론

해전에 대한 특별한 원칙과 개념은 해양과 해군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에서 기인한다. 해양전략이 정립된 마한 시기와는 달리 지금은 눈부신 기술의 진보가 전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 그 자체가 변화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이 된 해양환경과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10]

과거의 '해양환경'은 바다 그 자체를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의 해양환경은 육상, 하늘을 포함한 바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의미한다.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리와 이동 개념부터 육상의 개념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전·평시 지형지물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육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다는 진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바다를 통해 세계의 모든 육상지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하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바다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는 물리적으로 점령하거나 요새화시킬 수 있는 육상과 달리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지배가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해군은 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 등의 특징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육군과는 다르게 다른 국가를 자극함 없이 이동이나 정박할 수 있어 군사적 기능 뿐 아니라 외교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11]

---

10) Ian Speller, "Naval Warfare," in David Jordan and James D. Kiras eds,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159-162.

해양전략은 이러한 해양과 해군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마한(Alfred Thayer Mahan)과 콜벳(Sir Julian Corbett) 등의 선구적인 해양전략가들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이론체계로 자리 잡았다.[12] 이들은 제해권(command of the sea), 함대결전(decisive battle), 공세적 행동(offensive action)과 세력의 집중(concentration of force), 현존함대(fleet-in-being), 봉쇄(blockade), 호위(cover), 해양통제와 거부(sea control and sea denial), 해양통제의 행사(exploiting sea contol) 등의 해양전략 용어들과 이론들을 정립하였는데, 이들 핵심 개념들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13]

Ⅲ. 클라우제비츠와 콜벳

1. 주요개념

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4]

독일(프로이센) 출신의 클라우제비츠는 역사상 최초로 시민군대를 동원한 프랑스혁명 전쟁과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등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론』을 집필하였다. 『전쟁론』은 총 8편 128개 장절로 구성되어 전쟁의 본질, 전쟁을 구성하는 요소와 상호관계 등이 담겨있다. 특히 그가 사망하기 전 유일하게 완성한 1장 1편 '전쟁의 본질'에는 그의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전쟁의 목적과 수단, 마찰과 삼위일체 등의 개념이 담겨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폭력행위"로 정의하면서,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고, 전쟁의 목표는 적의 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폭력은 전쟁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15] 그의 이러한 절대전쟁 이론은 이론적으로 적이 완전히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장해제가 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를 위해

---

11)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Inc., 1977)

12) Ian Speller(2017), p.164.

13) 각각의 개념과 이론들은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Perfect Library, 2015), pp.199-237. 강영오,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77-84. Ian Speller(2017), pp.164-173. 등을 참고할 것.

14) 클라우제비츠 저, 김만수(옮김), 『전쟁론1』(서울:갈무리, 2006)

15) 김연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군사사상론』(서울: 군사학연구회, 2016), p.135.

폭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극단성과 절대성을 특징으로 한다.[16]

그러나 그는 실제 현실세계에서의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는,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정치적 목적은 양측의 의지와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달라진 정치적 목적은 군사목표와 노력의 크기 역시 달라지게 만든다. 그는 여기에 전쟁의 위험, 육체적 노력, 불확실성, 우연성 등의 '마찰'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전쟁이 절대전쟁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또한 결말 부분을 통해 전쟁을 '놀랄만한 삼위 일체'로 묘사하였는데 그가 말한 전쟁의 3요소, 삼위일체란 국민과 관련된 폭력성과 적대감, 군대와 관련된 우연과 개연성,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종속성을 말한다.

> "전쟁은 맹목적이며 천부적인 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초적인 폭력, 즉 증오와 적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조적인 정신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 우연과 개연성의 도박이며, 정책의 도구로서의 종속적인 요소-이 때문에 전쟁은 오로지 이성의 지배만을 받게 된다-로 이루어진 삼위 일체이다. 이들 세 국면 가운데 첫 번째는 주로 국민에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휘관과 그의 군대에 관련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
> 전쟁의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은 법률의 세 가지 규약처럼 그들이 관계되어 있는 주제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상호간의 관계는 항상 변화한다. 이들 성향 가운데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상호간의 관계를 독단적으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이론은 너무나 현실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그 이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17]

나. 콜벳의 『해양전략론』[18]

줄리언 콜벳(Julian Corbett)은 클라우제비츠가 사망한지 20여년 후에 태어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영국에서 해양전략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해군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해군의 내부 조언자로서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개혁과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력을 지닌 해양 전략가이다.

---

16)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했다. 즉, ①전쟁이 과거와 무관하게 고립된 행위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②전쟁이 단 한 번의 결전이나 동시에 발행하는 결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③전쟁에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이 전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쟁이 독자적으로 종결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이 조건들이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절대전쟁은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김연준(2016), pp.136-137.

17) Michael Howard, *Clausewitz*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73.

18)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Perfect Library, 2015).

그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해양전략론』은 당시 해군정책 및 전략의 핵심인물이었던 콜벳 자신이 해양 전략에 관해 발전시킨 개념과, 해군대학에서 해군사 강의시 사용한 강의노트들로 구성되어 1912년 출판되었다. 콜벳은 클라우제비츠는 물론 조미니(Jomini), 폰 데어 골츠(Von der Golz), 폰 카에머러(Von Caemmerer), 크라프트 공(Prince Kraft)와 같은 권위있는 군사 전략가들의 글을 광범위하게 읽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전의 이론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전쟁이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9]

『해양전략론』이라는 책 제목 자체에서 암시하듯 콜벳은 서문을 통해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해군을 넘어서는 해양의 범위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은 지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군 단독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그는, 해군전략은 함대의 이동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반해 해양전략은 해군이 지상군과의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루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20]

책은 크게 전쟁이론을 다룬 1부, 해전이론을 다룬 2부, 마지막 해전의 수행측면에서 살펴본 3부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전쟁이론에서는 전쟁의 본질, 공격과 방어, 제한과 무제한 전쟁, 제한전쟁과 무제한 전쟁에서의 해양의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수단은 반드시 정책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2부 해전이론에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의 세 측면에서 해전을 설명하며, 3부 해전의 수행에서는 해전과 지상전의 상이성과 해군작전의 형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콜벳은 전쟁이론을 통해 전쟁이란 정책의 도구이므로 항상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하며, 해전과 같은 군사적 행동 역시 정책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전쟁의 목적과 성격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무제한적이냐 제한적이냐에 따라 공격 혹은 방어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해양전략에 있어서 제해권을 영구적이고 절대적으로 보고 제해권 확보 자체를 강조했던 마한과 달리 콜벳은 "제해권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콜벳은 "제해권 장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제해권 장악 자체가 목

---

19) 줄리안 콜벳(Julian Corbett) 저, 김종민·정호섭(공역),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19. 김기주, "머핸과 코벳의 해양전략사상," 군사학연구회 『군사사상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352.

20) 콜벳은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보다 상위의 개념이 해양국가에게 성공적인 전쟁을 위한 지혜를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바다와 육지간 독립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 역시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Julian Corbett(2015), pp.5-9.

적인 경우는 없었고 목적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해상교통로의 통제를 중시하였다. 그에게 제해권 행사 방법은 아국의 해양 통항을 보장하는 반면, 적의 해양 통항은 거부하는 작전들을 의미했다.[21]

> 제해권이란 영토의 점령과 같은 전략적 조건을 형성하는 동일한 뜻이 아니다… (중략) 제해권은 상업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의 해양 통항의 통제에 불과하다. … (중략) 적의 해양 통항의 점령과 교통 요지의 봉쇄는 적의 해양 국가 활동을 파괴하고 적이 해외 의존적인 한 적국의 육지 활동을 견제하게 된다.[22]

해전의 수행을 다룬 3부는 콜벳의 해양전략 이론의 독창성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해전과 지상전이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완전상태에서는 결전과 봉쇄가, 분쟁상태에서는 현존함대와 소규모 대응공격이, 제해권을 완전히 획득한 상태에서는 지상군과의 협동작전이 이루어진다는 해군작전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2. 유사성과 상이점

콜벳의 이론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본문의 1부 전쟁이론이다. 서문을 통해 콜벳은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해전 역시 정치목적의 성격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1장 1편 '전쟁의 본질'에서 주장한 정치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콜벳 이론의 출발점이 클라우제비츠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콜벳은 해전의 목적은 단지 해군 작전의 성공, 혹은 제해권 확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외교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을 조화시켜야 하고, 나아가 지상군의 합동작전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해군) 수뇌부는 (정부의 각료들에게) 정부가 외교를 통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이 실패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실 해군 수뇌부는 외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군이 사용할 수단은 외교적 목표에 좌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략) 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서 문서 대신 전투로 수행하는 정치적 교류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국

21) 김기주(2016), pp.354-355.
22) 줄리안 콜벳(2009), pp.129-131.

제관계이며, 단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만 여타 국제관계와 다를 뿐이라고 보았다."[23]

또한 콜벳은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바와 같이[24] 전쟁 목적에 따라서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클라우제비츠의 공격과 방어 이론에 기반을 둔 그의 주장은 결전을 중시하는 당시 영국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25]

"공격과 방어는 전쟁의 본질적인 성질이며 이는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진리이다. 모든 전쟁과 전쟁의 모든 형태는 공격과 방어를 내포함에 틀림없다… (중략) 만약 지상이나 해양을 이용하여 유리한 방어적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 위치는 적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강탈의 이점은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중략) 즉 방어의 핵심은 대응공격으로서 타격을 위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지 비활동적인 상태로 움추려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는 제한된 활동의 한 형태이지 휴식의 상태가 아니다… (중략) 전략적 방어는 지상에서와 같이 해양에서도 흔히 있었던 전쟁수행 형태였으며, 문제는 적이 방어적 태세를 취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분쇄하느냐 하는 것이다."[26]

제한전쟁과 절대전쟁의 개념 역시 콜벳이 저서에서 밝히고 있듯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기반한다. 그러나 콜벳은 동시기의 다른 사상가들과 달리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이 초기 집필시에는 절대전쟁만을 인지한 상태였으나, 후반기를 집필하면서 무제한전쟁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변화를 알아채며,[27] 독일의 대륙전략 이론과 영국의

---

23) 베아트리제 호이저(2016), p.262.

24) 클라우제비츠는『전쟁론』의 마지막 권인 〈전쟁계획에 관하여(On War Plans)〉에서 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주장했다. 첫째, 방어의 목적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공격보다 더 강하다. 땅을 빼앗기보다는 지키는게 더 쉽고, 남의 것을 얻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기가 더 쉽다. 둘째, 방어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즉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과 공격을 받아 넘기는 것이다. Michael Howard(1983), pp.52-54.

25) 1911년 해군본부위원회는 콜벳의『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의 출간에 동의하면서 서문에 "본 위원회는 이 저작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원칙, 특히 전투를 추구하고 전투를 통해 전쟁을 종결하려는 행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추가했다. 베아트리제 호이저(2016), p.262.

26) 줄리안 콜벳(2009), pp.75-83.

27) 클라우제비츠는 최초에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절대전쟁'을 신봉하다가, 다음은 국경부근에서 적의 영토 일부를 침략하려는 '현실전쟁'으로 전환했고, 나아가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책의 계속"이라고 발전해갔다. 그가 현실전쟁으로 전향하게 된 이유는 첫째, 고대로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의 전쟁사를 면밀히 분석·연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 현실전쟁임을 확인한 것. 둘째,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절대전쟁을 추구하면, 이웃나라와 미래의 우호관계를 잃고 복수전의 반복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종학(2012), pp.121-123.

해양전략 이론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전쟁론 8편 중 7편까지는 전쟁형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제8편에서 그의 사상이 분명히 제시되었지만 8편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다.···(중략)그는 초기 전쟁론 집필시 겪었던 모든 어려움(나폴레옹의 전쟁수행 방식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했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었다···(중략)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였을 것이다···(중략) 요약해서 우리는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의 교훈으로서 전쟁이론이란 단일의 절대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과 무제한의 이중적 특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중략) 명심해야 할 것은 대륙전쟁이 커다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해양이 전쟁에서 직접적이며 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현대 국제사회의 환경을 위한 그들(클라우제비츠, 조미니) 사상에 대한 검토와 그들이 기피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28]

그리고 그 부분에서부터 콜벳만의 독창적인 해양전략 이론이 시작되었다.

콜벳은 클라우제비츠가 적의 국경 지방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영토나 지역이 고립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무제한 전쟁은 실제 무제한 전쟁으로 확대된다거나 정치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제한전쟁은 해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제한된 목적의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필수적이다. 첫째는 지역의 제한뿐만 아니라 목적의 제한된 정치적 중요성이며, 둘째는 전략적으로 고립되거나 전략적인 작전에 의하여 실제로 고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보았던 것과 같이 교전 쌍방은 원하기만 한다면 무제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며 영토점령의 목표를 무시하고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으로 내닫게 된다··· (중략)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즉 제한전쟁은 도서국가나 해양으로 분리된 국가들에게만 가능하다. 그러한 국가들이 제한전쟁을 추구할 경우 목표를 고립시킬 수 있을 능력의 보유뿐만 아니라 본국을 침공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해양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제해권이라 불리우는 최고의 군사적 가치의 진정한 의미에 다다르게 되며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대륙국가에 대항하여 성공한 영국의 비결에 접근하게 된다."[29]

---

28) 줄리안 콜벳(2009), pp.84-93.

29) 줄리안 콜벳(2009), pp.94-101.

그리고 그는 영국이 해전이라는 제한전쟁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대륙국가에 대항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영국의 제한된 형태의 전쟁수행 방식은 대륙의 그것과 분명하게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중략) 이러한 경향은 또한 영국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쟁형태를 본능적으로 선택한 분별성 이외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한 성향은 본능적으로 대단히 강하여 영국으로 하여금 낮은 차원의 제한전쟁 형태에 적응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목적이 분명한 영토점령과 같은 경우와 전쟁목적이 덜 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영국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러한 방법이 대부분 성공하였으며 대륙의 동맹국과 적군의 타도와 같은 무제한 목적의 전쟁에 협력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을 때도 성공하였다."[30]

또한 콜벳은 육전의 무제한 전쟁의 모습, 즉 영토의 점령이라는 개념이 해전에는 다르게 적용된다며, 해전의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제해권 확보를 위하거나 적의 제해권 확보를 방지하는 것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토는 점령되어 지배될 수 있으나, 해전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어느 측도 완전한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한, 즉 제해권이 확보되지 못한 해양이었고, 이는 영해 이외의 해양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아 모두에게 해당되는 해양에 관한 권리란 통항권, 그리고 육지 통항수단의 장애물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콜벳에게 제해권의 목적은 해양 통항의 통제였고, 이러한 해양 통항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이 아니라는 점이 콜벳이 주장한 제해권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문제의식의 시작점이었다.

---

30) 줄리안 콜벳(2009), pp.117-118.

Ⅳ. 조미니와 알프레드 마한

1. 주요개념

가. 조미니의 『전쟁술』[31)]

조미니는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스위스 태생의 군인이자 군사이론가이며, 역사가이다. 전쟁의 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근대 군사과학의 창시자로 클라우제비츠와 함께 19세기 군사학을 대표하는 군사이론가이다. 그가 1801년~04년 프리드리히 대제의 전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대전술에 관한 논문』은 나폴레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그의 참모장교로 울름전투(1805), 아일라우 전투(1806)에 참전하면서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는다. 후에 러시아 장교로 대 프랑스전에 참전할 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1869년 숨질 때까지 러시아 황실의 군사고문으로 여생을 보낸다.

그가 남긴 서양 군사이론의 기반이자, 군사과학의 시초로 불리우는 『전쟁술』은 "시공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초월하여 불변하는 전쟁의 원리들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32)]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전쟁술』을 전략(strategy), 대전술(grand tactics), 군수(logistics), 공병(engineering), 요새진지·소전술(minor tactics) 5가지의 큰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그의 군사이론의 시발점이자 핵심이론은 '전략' 부분에 담겨있다. 그는 전략을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 보았고, 이어 전술은 '결정적 충격이 일어나야만 하는 전장의 결정적 지점에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정적 지점이 판단되면, 지형조건 및 적군의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전선을 설정하고, 올바로 선정된 작전선을 따라 작전지대의 결정적 지점에 부대를 집중하여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선작전(interior lines of operation)에 대해 강조하며 적의 취약부분에 병력을 집중하여 병력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조미니는 이를 위해 프리드리히와 나폴레옹 전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원리를 도

---

31) 앙투안 앙리 조미니(Antoine Henri Jomini) 저, 이내주(옮김), 『전쟁술』(서울: 책세상, 2014)

32) 클라우제비츠가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규명하려 했다면, 조미니는 과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시공을 초월해 적용될 수 있는 전쟁의 불변 원칙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군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유상범, "조미니의 군사사상," 군사학연구회 『군사사상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170.앙투안 앙리 조미니(2014), p.473.

출하고, 각종 군사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은 물론 각종 도해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그는 클라우제비츠와 달리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의 개념을 전역으로 한정하였고 그 개념 범위 안에서 작전행동을 전쟁의 목적에 종속시켰으며, 장군은 전역에서의 작전선 선택에 따라 정치적 목적, 즉 일정한 지역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조미니는 상륙전은 물론이고 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분석한 선구적인 군사이론가였으며, 그가 『전쟁술』을 통해 보여준 주요 해상원정 작전에 대한 분석은 뒤이어 살펴볼 마한의 해양전략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33] 조미니의 군사정책, 전략과 전술, 군수, 부대대형, 정보, 통신 등의 설명에서 도출한 결정적 지점, 작전선, 공세작전·방어, 기동, 군수지원 등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살펴볼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 곳곳에 등장한다.

나.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3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해군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대외정책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수많은 나라의 해군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해군사관학교 생도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그는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극동아시아, 유럽, 남미로의 원양항해를 통해 시야를 넓혔고, 1885년부터 해군대학에서 함대전투의 전술과 해양력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강의를 하며 해군대학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전역 후에는 해군장관의 자문관, 해군 재조직위원회 등에서 해군정책에 관한 자문역을 수행했다. 특히 해군대학 폐교론까지 거론될 정도의 '해군 무용론'이 있었던 19세기에, 해양력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여 당시 미국이 해양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군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론가라 할 수 있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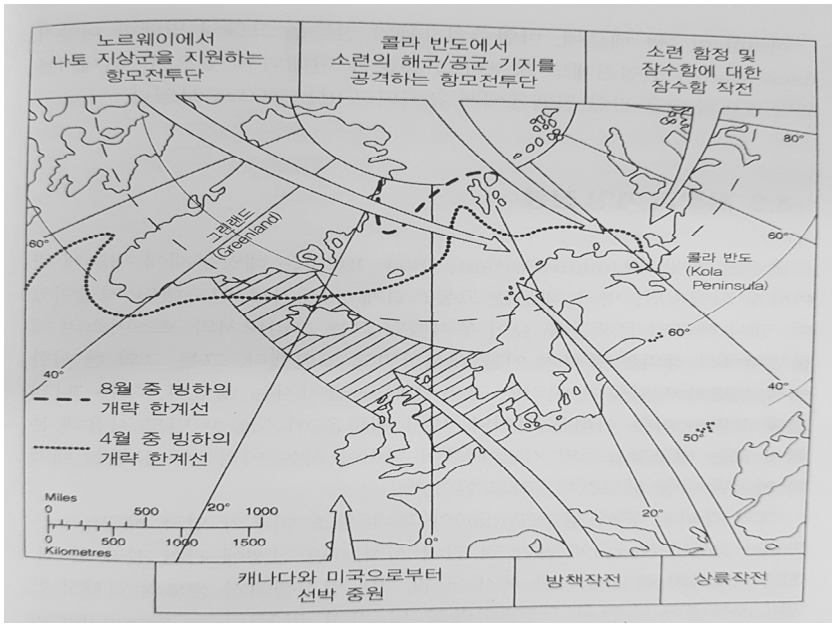
---

33)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장군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조미니의 『전쟁술』을 들고 전투에 임했다고 할 정도로 조미니의 영향은 컸다. 이후 해상의 조미니로 불리우며 내선 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알프레드 마한에 의해 조미니의 영향은 빠른 속도로 확산 되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승의 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쉽게 설명한 『전쟁술』은 초창기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규모 군을 활용한 집중과 선형 전투개념은 지금도 남아 미군에서 유지되고 있다. 유상범(2014), p.198.

3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김주식(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2』(서울: 책세상, 2006)

35) 마한이 책을 출판한 그 해에 트레이시(Benjamin Tracy) 해군장관은 공격적인 전투함대를 요구하는

〈그림 1〉 1986년 미 해군의 해양전략(The Maritime Strategy)[36]



그는 1890년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을 출간하여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전투함대(offensive battle fleet)의 결전을 통해서 공격적인 해양통제(offensive sea control), 즉 제해권(command of sea)을 획득한다는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마한은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해군의 호소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군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해양력이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해양력이 역사의 진로와 국가의 번영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간행했고, 의회는 그 해에 인디아나(Indiana)급 일급 전함 3척의 건조를 승인하는 해군법령(Naval Act)을 통과시켰다. 마한의 해양력의 개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호소는 100년동안 공격적인 함대를 보유한 해군을 국가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했다. 조지 베어(George W. Baer) 저, 김주식(옮김),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p.2-3.

36) 조지 베어(Georgy Baer)는 해양전략(The Maritime Strategy)의 목적을 "전진 배치와 대형함대를 갖춘 해군의 공세적인 가치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구축하고 마한의 권고에 따라 대중과 전문가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에 일반에 공개된 미 해군의 해양전략은 이러한 마한의 생각이 20세기 후반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제프리 틸(2011), pp.109-111.

바다를 무역로이자 교통로로서 표현하며 해양력의 3요소와 영향을 미치는 6요소를 설명했다. 그는 해양력의 3요소로 해운업, 그것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해군력, 그리고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식민지를 꼽았고, 일반적으로 해양력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는 지리적 위치, 자연조건, 영토의 크기, 인구 수, 국민성, 정부의 성격 등 여섯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2장부터 13장까지 12개의 장은 1660~1783년까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해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각 전쟁의 원인, 경과, 그리고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비록 해양력 자체만으로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해양은 국가가 위대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했었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강제로 양보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한은 영국이 대영제국을 형성했던 과정을 해전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면서 미국도 역사의 교훈을 따라 바다로 눈을 돌리고 해양력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37]

2. 유사성과 상이점

마한은 제해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영국의 존 콜롬(John Colomb)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혔지만, 그의 전략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미니였다.

> "내가 내 앞에 있는 많은 해군 역사서적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하도록 자극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조미니의 저술을 읽고 난 이후였다. 군사적 책략에 대한 고찰들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데, 나는 조미니가 서술한 그 고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중략) 나는 그러한 해군역사를 바탕으로 순수하고 영구적인 교훈을 추출할 수 있었다."[38]

실제 마한은 해전을 분석하면서 조미니의 핵심 개념을 통해 역사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마한의 해양전략의 핵심은 강한 해군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해권이 확보되면 평시에는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을 보호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전시에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다. 마한은 이를 위해서 집중(concentration),

---

37)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6), pp.887-891.

38) Alfred T. Mahan, *From Sail to Steam: Recollection of Naval Life* (Harper & Brothers, 1907), p.27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5), p.881에서 재인용.

중앙선과 중앙위치(cnetral line of position), 내측행동선 또는 내선(interior line of movement or interior line), 그리고 해상교통로(communic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39], 이는 조미니가 강조한 결정적 지점과 그에 대한 집중, 작전선, 공세작전·방어, 기동, 군수지원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조미니는 지상전에서 결정적 지점에 대한 병력의 집중에 대해 강조한 것과 같이, 마한도 중요 지점에서 전술적인 진형을 갖추어 함대세력과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상에서 영국함대의 질서정연한 진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영국함정들에 의해 형성된 전열보다 더 반듯하게 그어진 선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적에 대해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중략) 그들은 규칙에 의해 조종되는 기병대처럼 싸우고, 전적으로 적에게만 집중하여 전력을 다한다. 반면에 네덜란드 함대는 각각 분리하여 출발하는 기병대처럼 개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40]

마한은 집중에 대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병술(military art)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라며 이는 해군의 화력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즉 함대의 집중(concentration)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그는 함대를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41]

또한 세력의 집중이 필요한 전략적 위치(central position)와 작전선(lines of operation)에 대한 조미니의 개념과 같이,[42] 수에즈 운하라는 중앙적 위치를 공격할 경우 지중해나 인도양의 분산된 세력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러일전쟁 역시 일본이 한반도 진해에 세력을 집중하고 내선 작전선(interior lines of operation)으로 전 함대가 단기간 내에 신속히 기동할 수 있었으나, 여순과 블라디보스톡에 함대를 분산시켰던 러시아는 외선 작전선(exterior lines of operation)으로 기동, 세력의 집중에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43]

---

39) 마한은 그의 강의록이자 또다른 대표 저서인 『해군전략론(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의 서론을 통해 4가지 주제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이 원칙들을1976년 프랑스·오스트리아 전쟁, 1635년~48년의 프랑스와 동맹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동맹국간의 전쟁, 1652년~54년의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이윤희, 김득주(옮김), 『해군전략론』(서울: 동원사, 1974).

40)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5), p.210.

41) 조지 베어(2005), p.22.

42) 강영오(1998), pp.139-140.

해상교통로는 조미니의 군수지원 개념과 관련 깊다. 마한은 바다를 지상로와 같이 교통로(communication)이자 무역로, 보급로, 수송로로 보았다. 하지만 해상은 육상보다 훨씬 쉽고, 값이 싸며, 더 안전하고 시간도 덜 걸리는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상교통로는 해군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한은 넓은 의미의 해양력은 이 두 가지 즉, 경제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가 모두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 "넓은 의미의 해양력은 무력에 의해 바다나 바다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도 포함하고 있다. 해군 함대는 이러한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에 의해서만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생겨날 수 있고 또한 그 위에서 안정된 기반을 다질 수 있다."[44]

Ⅴ. 결언

전략이론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이자, 나라가 존속하고 망하는 갈림길이 되는 나라의 중대한 일, 즉 전쟁'[45]과 관련된 일이다. 전략이론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며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혹은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단과 판단의 틀을 제공한다.[46]

해양전략의 개념과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마한과 콜벳 등은 항상 클라우제비츠, 조미니, 나폴레옹, 몰트케 등 수많은 군사전략가들의 사상과 이론을 가까이 하며 본인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존 개념과 이론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한 것이 아니라 해양과 해군이 지상과 육군에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이며, 지상전략의 개념과 원칙을 어떻게 새로운 해양환경에 적용해야 하는지 과거 해전의 역사에 비추어보며 고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기존의 지상전략에서 공통적으로 취할 것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받은 콜벳은 정치의 우위성, 공격와 방어전략, 제

---

4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1974), p.11.

4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5), p.76.

45) Sun Tzu, translated by Thomas Cleary, *The Art of War*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1988), p.1.

46) 이종학(1992), p.56.

한전쟁과 무제한전쟁의 개념에서 해전의 원칙을 도출하였고, 조미니의 영향을 받은 마한은 집중, 중앙선과 중앙위치, 내선(작전선), 해상교통로(군수지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지상전략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서 해양에서 창조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원칙과 경험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콜벳은 지상전과 해전의 목적, 수단, 방법 등의 차이점을 통해 해양전략의 개념과 원칙을 새롭게 세웠고, 마한 역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해전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기존 지상전략 개념과 원칙이 어떻게 해양전략에 다르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를 증명해냈다.

왜 이들은 지상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전략 이론을 세운 것일까? 필자는 마한의 생각을 통해 현대적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마한은 육전의 경험이 해군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예부터 육전은 해전보다 훨씬 많았고, 따라서 이들의 자료를 토대로 정식의 연구를 함으로써 근본적 원칙을 발견하고자 크게 노력한 결과, 그 서술에 있어서는 해전보다도 훨씬 발달되어있다. 둘째, 증기추진법이 출현함으로써 예부터 육전과 해전의 주요 차이점이었던 원동력의 불활실성이 감소되었다. 이어 그는 "해양전략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좋은 지상전략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전보다 더 뛰어난 모습에 그 누구도 그 건물이 예전의 건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47]

사람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과 원칙, 이를 찾기 위해 수많은 군사전략이론가들은 수많은 전투경험과 역사, 그리고 사색 등을 통해 노력하였다. 해양전략 이론이라는 결과물도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개념과 이론 위에 해양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청출어람'의 결과였다. 과거의 산물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미래의 해양전략가들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이다.

47)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1974), p.115.

참고문헌

강영오,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김기주, "머핸과 코벳의 해양전략사상," 군사학연구회 『군사사상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김연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군사사상론』(서울: 군사학연구회, 2016).

리안 콜벳(Julian Corbett) 저, 김종민·정호섭(공역),『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박창희, 『군사전략론』(서울: 프래닛미디어, 2017).

베아트리체 호이저 저, 윤시원(옮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서울: 일조각, 2016).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이윤희, 김득주(옮김), 『해군전략론』(서울: 동원사, 197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김주식(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2』(서울: 책세상, 2006).

앙투안 앙리 조미니(Antoine Henri Jomini) 저, 이내주(옮김), 『전쟁술』(서울: 책세상, 2014).

유상범, "조미니의 군사사상," 군사학연구회 『군사사상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육군본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전략』(충남: 육군본부, 1977).

이종학,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 「손자병법」과 「전쟁론」을 중심으로』(유성: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제프리 틸(Geoffrey Till) 저,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조지 베어(George W. Baer) 저, 김주식(옮김),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클라우제비츠 저, 김만수(옮김), 『전쟁론1』(서울:갈무리, 2006).

Alfred T. Mahan, *From Sail to Steam: Recollection of Naval Life* (Harper & Brothers, 1907).

Christopher Tuck, "Land Power," in David Jordan and James D. Kiras eds,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Colin S. Gray, *Maritime strategy, geopolitics, and the defense of the West* (NY: National Strategy Information Center, 1986).

Ian Speller, "Naval Warfare," in David Jordan and James D. Kiras eds,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Gerry Stoker, "Intoduction." in David Marsh and Gerry Stoker 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Houndmills: MACMILLAN PRESS LTD, 1995).

J. C. Wylie, *Military Strategy* (M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4).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Perfect Library, 2015).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Inc., 1977).

Michael Howard, *Clausewitz*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Sun Tzu, translated by Thomas Cleary, *The Art of War*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1988).

Abstract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that Influenced Maritime Strategy Theories

Park, Joo M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significant influence of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on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trategy theorie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similar and different parts of each theories and their implications when applied to different environment.

In details, Chapter 2 deals with how continental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theories are similar and different in general. In Chapter 3, I look into how Karl Clausewitz's theory that has been quoted the most by military strategy theorists had influenced over the theory of Julian Corbett, one of the representative English maritime strategy theorists. In Chapter 4, I study how the theory of Alfred Mahan that has also been quoted the most among the theories of maritime strategy had been influenced by Antoine-Henri Jomini's theory. And in Chapter 5, their contemporar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are drawn.

According to my findings, unbelievably, the theories of maritime strategy had been influenced by existing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very much. Many similarities are found between them. However, at the same time, a large part of them i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riginal ones especially when used to reflect the maritime distinctiveness. This means that the past maritime strategy theories and stored experience also wield influence, in many ways, yielding out much better ones in terms of applicability to changing environment. Therefore, devising new strategies with creative attitude using knowledges and experiences from both other fields and past ones is the virtue required for maritime strategists.

Key Words: Military Strategy, Continental Strategy, Maritime Strategy

논문접수 : 2018년 4월 30일 | 논문심사 : 2018년 5월 18일 | 게재확정 : 2018년 5월 23일

* LCDR, The ROK Navy.